

# 무주군, 군정목표 실현의 원년

### 분야별 주요업무 보고회... 공약·신규사업 등 구체적인 논의 기대

2019년을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하는 군정목표 실현의 원년으로 삼은 무주군은 10일 분야별 주요 업무 공유를 시작했다.

세계적인 으뜸관광, 건강가득 소득농업, 함께 하는 주민복지, 지역맞춤 특색개발, 움직이는 자치행정 등의 군정지표 실현을 가속화시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데 집중할 방침으로, 산업경제과를 시작으로 16일 기획실까지 총 19개 실과소가 군정목표를 기반으로 수립한 부서별 주요업무 목표와 추진방향, 그리고 팀별 추진 업무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무주군은 10일 분야별 주요 업무 공유를 시작했다.

올해는 특히 공약사업을 비롯한 신규 사업과 생활 SOC공모 대응계획 등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주도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추진 성과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군 공무원들은 "무엇이 지역을 위하는 일이고 무엇이 주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올 한 해를 설계했다"라며 "새로운 마음으로 수립한 업무계획을 토대로 무주다운 무주를 만들고 행복한 일상을 일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올 한 해 △무주비전 2030 수립을 통한 장기비전 전략과 △정책 간 연계성이 확보되는 군정 운영의 세부 설계도 마련, △무주다

운 무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개인 및 부서역량 강화, △섬기는 행정·발로 뛰는 행정 추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주력할 방침으로, 특히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등 생활 SOC사업 추진과 인구늘리기 및 일자리사업 추진, 마을별 공동 수직장 설치 운영 등을 기반으로 한 농·특산물 신유통체계 구축, 태권브이랜드 조성, 골드북지 프로젝트(경로당 식사도우미,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어르신 작은 목욕탕, 수영장 무료 이용 등)추진,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농촌중심지 활성

화 사업(무주읍, 무풍면, 설천면, 안성면, 적상면)추진, 농촌다음 복원사업 추진 등 10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황인홍 군수는 "올 한 해 군정, 나아가 민선 7기 무주군정의 토대가 되는 기초공사의 만큼 발굴에서부터 추진, 그리고 업무성과를 도출해내는 일까지 철자를 기할 것"이라며, "개인이 팀이 되고 또 지역이 돼 일군 변화들이 모이면 결국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올해 첫 지역축제심의회 개최

### 홍삼축제 대표 콘텐츠 미비 등 개선사항 논의

진안군은 10일 군청 상황실에서 지역축제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지역축제심의회를 열었다.

진안의 지역축제인 홍삼축제, 운장산고로쇠축제, 수박축제, 꽃잔디축제 등 각 추진위원장의 지난해 축제에 대한 성과 발표와 올해 지역축제에 대한 토론과 자문이 이어졌다.

진안군의 대표축제인 진안홍삼축제는 2년 연속 20만명 이상 방문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지만, 대표 콘텐츠가 미비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행사장 협소로 인한 테마공원 유휴부지 확보, 포토존 확대 등의 개선사항이 논의됐다.

운장산 고로쇠 축제는 셔틀버스 운행, 휠체어 대어 확대 등 각종 편의

시설 확충, 노점상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과 진안고원수박축제는 더운 날씨에 대한 대책과 수박 물량 확보를 위한 방안들이 얘기됐다.

이어 전북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1시군 1대표 작은 축제와 관련, 지역만의 특색있고 스토리가 있는 마을 축제 등 소규모 축제를 육성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안건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심의회에서 1시군 1대표 작은 축제로 고로쇠축제를 선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진안군은 1시군 1대표 작은축제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가족농원 입주자 모집

진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필환)는 귀농귀촌 정착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체재형 가족농원 입주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체재형 가족농원은 친환경 내부 마감과 마이산이 한눈에 보이는 경관을 자랑한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영농기술 교육과 초보농업인 교육, 환경농업대학을 통해서 진안 농민들과 교류하고 다양한 정보는 물론 농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입주세대는 총 8세대로 전년도 입주해서 연장한 3세대를 제외한 5세대를 신청받는다. 입주대상은 타 지역 거주자 또는 진안 거주 1년 미만인 30세 이상의 2명 이상 세대다. 신청은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우편, 이메일로 가능하다. 입주세대는 올 3월에 입주하여 최대 2년간 생활하게 되며 영농체험과 영농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이 '제13회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새로운 슬로건 공모에 나선다.

##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전국 슬로건 공모전

### 오늘부터 2월 10일까지

장수군이 군 대표 축제인 '제13회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새로운 슬로건 공모에 나선다.

장수군은 11일부터 내달 2월 10일까지 축제 관심도를 높이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관광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슬로건 전국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은 기존에 사용하던 '1회 사과랑 지연 그리고 장수 농·특산물의 만남', '2~3회 장수물 때나는 여행', '4~5회 자연에서 느끼는 오감의 행복', '6회 장수를 품안에! 자연을 입안에!', '7~13회 한우로 전하는 사랑! 사과로 건네는 향기'라는 슬로건의 이미지를 벗어나 독창적이고 참신한 슬로건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슬로건 내용은 축제 주요 자원인 한우와 사과, 오미자 등 Red Color 농·특산물을 활용해 장수 이미지

/장수=고관호 기자

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결합된 축제의 특성을 살린 20자 이내 문구다.

슬로건 선정은 1차 축제추진부서 및 추진위 선호도 조사, 2차 직원 대상 선호도 조사, 3차 축제추진위원회 결정을 거쳐 창의성, 대중성, 축제 연관성 등 심사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당선작에 따라 최우수상 1명(상금 30만원), 우수작 2명(상금 10만원), 가작 3명(상금 5만원)을 선정하며 최우수 슬로건은 2019년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공식 슬로건으로 활용된다. 응모 방법은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홈페이지(<http://www.jangsupfestival.com>)자유키스판과 전자메일([inthe2211@korea.kr](mailto:inthe2211@korea.kr)), 우편(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문화체육관광과 축제진흥팀 우 55634) 또는 방문해 공모 제안서를 접수하면 된다.

## 지역 매아리

### 진안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진안군은 10일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10%를 깎아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납부 시 연간 세액의 10%를, 3월에 납부하면 7.5%를, 6월에 납부하면 5%를, 9월에 납부하면 2.5%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 소재지 관할 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위택스)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http://www.wetax.go.kr)),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할수, 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며,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내에 많은 군민이 신청해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진행

무주군은 10일 적상면 '고추' 품목을 시작으로 2019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총 10회 7개 교육과정)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첫날 열린 교육에는 적상면 고추재배 농업인 등 2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PLS(Positive List System)제도와 고추재배의 문제점(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물 부족, 유인재배, 작과 불량, 내방류 피해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농업인 이 모씨(58, 적상면)는 "교육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좋았다"라며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도 올해부터 확대·시행이 된다고 해서 궁금했는데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전했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지역의 농업발전을 주도하고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29일까지 6개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돌며 고추와 포도, 복숭아, 사과, 인삼, 오미자 등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에 대한 신기술 개발 및 병해충 방제 등에 대한 재배관리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체계 개선 총력

진안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수도요금 부과 징수 체계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상수도 검침이 인력으로 운영되면서 제 날짜에 검침이 이루어지지 않아 누진요금을 확인할 수 없어 주민 민원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상수도 계량기 검침표를 세대별로 부착하여 검침량을 기재하는 등 각 세대가 수시로 사용량을 체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는 상수도 검침대장에 검침일자를 기재하고 상수도요금고지서에 검침일과 사용기간을 명시하는 등 요금부과 투명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9월과 10월분 상수도요금(7, 8월 사용분)에서 누진요금을 전면 감액함은 물론 12월부터는 검침원 1명을 증원해 상수도요금 부과에 따른 주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